

이인범(李寅範) 목사

1. 이인범 목사의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의 활동



이인범 목사(1896.09.25.-1951)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출처: Tokyo Chr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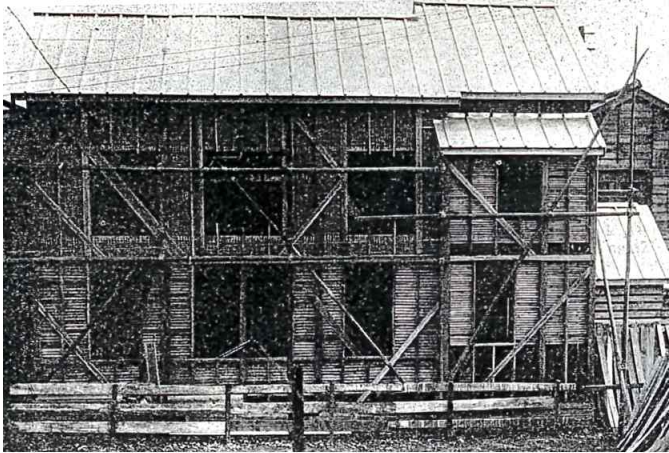
이인범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원적을 황해도 곡산군 운중면 유촌리, 생년월일을 1896년(명치 29년) 9월 25일생으로 기재하였다. 학력과 경력으로는, 1919년(대정 8년) 동양선교회 신학원 졸업, 1919-24년 12월까지 성결교회전도사 시무, 1925년 9월부터 1933년 9월까지 동경시 심천구 조선기독교회 목사 시무, 1933년 9월 조선 인천부 송현리 기독교회 목사부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이력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의 내용은 이인범이 1917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 밑에서 배웠고, 1920년에 졸업하였으며, 졸업 직후 경안교회에 부임하였고, 동년에 무교정교회

에 부임하였다가 1922년(혹은 1921년)에 강경교회로 오게 되었으며, 1924년에 동막교회로 전근되어 시무하다가 1926년에 면직되었다는 내용이었다[이명직,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1929, 157쪽].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는 1920년 6월 10일 이인범(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369호 4면, 대정 9년 7월 3일), 1921년 1월 15일에는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에서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으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46호 6면, 대정 10년 6월 7일). 그리고 1924년 8월 6일에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 12번지에서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북정교회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74호 6면, 대정 13년 11월 12일). 이어서 동양선교회는 1925년 1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성결교회에 이인범의 포교담임자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92호 7면, 대정 14년 4월 9일). 그리고 1926년 12월 22일 동양선교회는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의 포교폐지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21호 15면, 소화 2년 5월 27일), 1927년 1월 27일 동막성결교회의 구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85번지)을 신포교담임자 박정훈(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64의 20번지)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21호 14면, 소화 2년 5월 27일).

2. 이인범 목사의 도쿄 요츠야 선교부 조선인 기독교회들에서의 활동

이인범 목사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부터 1926년에 면직된 후 일본에 건너가



도쿄 심천조선인기독교회의 건축 중인 모습(1936)
건축비 부족으로 완공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다.

시무하던 1932년 8-9월 2달간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3년 2-3월에 40일간 요츠야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교회들을 탐방할 기회들을 가졌고, 부흥집회들을 인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첫 번째 탐방일자는 1932년 8월 1일이었다("ABOUT PEOPLE," *Tokyo Christian*,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1935년) [출처: Tokyo Christian]

교회를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이인범은 이들 집회를 통해서 총 138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What Would You Do?," *Tokyo Christian*, 1932년 11월호 4쪽.; "Evangelist Lee and Family," 1932년 10월호 1쪽.; "Evangelism," 1933년 2월호 2쪽.; "Another 'Venture of Faith'," 1933년 2월호 4쪽).

두 번째 탐방일자는 1933년 2월 중순에서 3월 24일까지 40일간이었다("ABOUT PEOPLE," *Tokyo Christian*, 1933년 5월호 1, 4쪽). 이 기간의 활동은 주로 수도권인 서울 창동교회와 인천 송현교회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창동교회는 1930년에 예배당을 건축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임대료를 내고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인범의 두 번째 탐방은 창동교회의 초청과 요츠야 선교부의 기대감으로 이뤄진 것이었는데("Church in Seoul, Korea," *Tokyo Christian*, 1933년 3월호 1쪽), 이번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월 19일에 27명에게 침례를

1933년 9월 조선인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입국할 때까지 7년간 도쿄 조선인들의 교회들을 섬겼다. 1927년 8-9월경에 요츠야 선교부의 동경 삼하도(미카와시마) 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근 4년간 동경 심천(후카가와)조선인기독교회 제1대 담임자로 섬겼다.

이인범은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1932년 9월호 1쪽). 중순경 평북 구성군 호켄(방현)면 하단동 방현교회와 인근 교회들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는데, 21일(주일) 하루에만 방현교회에서 2명의 장로(父子 의사)와 12명의 집사를 포함하여 총 9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는 이때의 부흥집회들에서 방현교회를 포함해서 총 3개

주었고(“ABOUT PEOPLE,” *Tokyo Christian*, 1933년 4월호 1쪽), 3월 8일에 서울



이인범 목사를 목회자로 모시려했다가
1932년 11월 20일 성낙소 목사를 청빙한 창동교회

이인범이 목회자가 되어 주기를 바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인범의 추천으로 몇 차례의 공동회의를 거쳐서 1932년 11월 20일 성낙소를 목회자로 청빙한바가 있었다 (『도쿄 크리스천』, 1933년 3월호, 1면).



J. 마이클 셸리 선교사 환영 기념 사진(1935년 3월 24일)
주일예배 직후에 촬영한 인천 송헌기독교교회 단체사진. 앞줄 중앙의
미국인 남성이 셸리이고, 우측이 딸 레이첼이며, 그 옆이 이인범 목사이다.

이인범의 성공적인 전도활동에 대해서 윌리엄 커닝햄은 “제10교회의 이 전도사(우리에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몸이 된 듯한 분)는 3월 말, 40일간의 두 번째 한국 순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순회에서 그는 이전 여정보다 설교는 덜 했고 조사는 더 많이 수행했다. 54명에게 준 침례는 우리의 갈렙이자 여호수아가 가져온, 쉽게 수확한 에스골(Eschol) 포도송이 같았으며, 이는 그 선교지가 얼마나 무르익고 풍성한지를 보여준다.”(“MR. LEE’S SECOND SURVEY IN KOREA,” *Tokyo Christian*, 1933년 5월호 4쪽)라고 적었다.

요츠야 선교부가 이인범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크게 고무되었던 것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선교성과가 조선에서는 가능하다는,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이인범을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이었다. 추정컨대, 커닝햄은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1933년 5월 20일 조선포교관리자직에서 성낙소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이인범을 파송하기

(창동교회?)에서 8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제물포(송헌교회와 난도/남동교회?)에서 1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ABOUT PEOPLE,” *Tokyo Christian*, 1933년 5월호 1쪽).

이 무렵은 성낙소 목사가 조선 포교관리자였고, 인천 송헌교회와 난도(남동, 부천군)교회 모두를 관리하고 있었다. 서울 창동교회는

송헌기독교회는 도쿄 삼하도(미카와시마)조선인기독교회를 섬기던 장로교목사 박흥순(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삼하도교회 개척자 박경순의 형)이 요츠야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기독교회 포교자로 서울 계동에서 활동할 당시 집사였던 전기기사 정삼선이 진센(제물포)에 유진우와 함께 처음부터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로 개척한 교회였다.

로 6월 5일 정기 월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Enlarged Program for Korea," *Tokyo Christian*, 1933년 8월호 1쪽). 요츠야 선교부는 1933년 9월 이인범을 조선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파송하면서 문구를 새긴 손목시계까지 선물하였다("Editor's Netes," *Tokyo Christian*, 1933년 11월호 3쪽). 이인범의 만딸이 6월 17일 결핵으로 사망한지 3개월만이였다("EDITOR'S NOTES," *Tokyo Christian*, 1933년 8월호 1쪽). 이후 이인범은 1943년 9월까지 10년(합법적으로는 7년 8개월간) 동안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로 헌신하였다. 급여는 월 25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1933년 5월호 2쪽).



윌리엄 D. 커닝햄(중앙)
이인범(좌), 이원균(우), 1936년경 도쿄

요츠야 선교부 대표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은 성낙소, 존 채이스(John T. Chase),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를 가볍게 내친 대가를 만 2년(1934-35년) 정도 혹독하게 치러야했었고, 이인범이 계출하려한 포교관리자변경계는, 조선총독부 총독 2회 및 제30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해군 제독 사이토 마코토의 도움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1936년 1월 10일 수리되었다. 그리고 나서 윌리엄 커닝햄의 가까운 이웃이자 도움이였던 사이토 마코토는 한 달 보름후인 2월 26일 도쿄 요츠야 자택에서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그리고 4개월여 뒤인 6월 24일, 커닝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을 거쳐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내려 자동차로 동부로 향하던 중, 암으로 인해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요 형제 병원(Mayo Bros.)에서 별세하였다("FAITHFUL UNTO DEATH. Promoted to Higher Service," *Tokyo Christian*, 1936년 9월호, 1-2쪽).

커닝햄은 이인범과 이원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지지하는 동안, 다른 동료였던 성낙소와 존 T. 채이스를 해고하였다. 채이스를 지지하던 여선교사들 역시 함께 사퇴했고, 요츠야 선교부의 오랜 후원자이자 한국 선교사에 지원하여 일본 땅을 밟은 J. 마이클 셸리조차도 이런 정황 때문에 요츠



경성아현기독교교회(1936년 3월 22일)
윌리엄 D. 커닝햄은 1936년 3월 3일 선교부에 부임한 토마스 G. 히치(Hitch)를 대동하고 그달 19일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모든 기독교회 선교지를 순방하였다. 그러나 이 순방이 그의 마지막 선교지들의 방문이 될 줄을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야 선교부와 결별하였다. 더구나 오랫동안 그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마저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다. 커닝햄은 이러한 슬픔 속에서 사이토를 떠나보낸 직후, 자신의 몸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호주에서 갓 청빙한 옛 동료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와 함께 한국의 모든 기독교회 선교지를 순방하였다. 이동 거리가 총 2,860마일(약 4,600km)에 달했다(“IMPRESSIONS OF THE WORK IN KOREA,” *Tokyo Christian*, 1936년 5월호 2-4쪽). 이 순방기간에 이인범이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확실히 처리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Korean Notes,” *Tokyo Christian*, 1936년 5월호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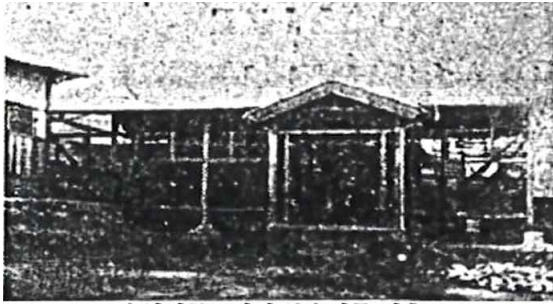
그리고 4월 24일, 커닝햄 부부는 동경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이날 동경역에는 100여 명이 나와 그를 환송했고, 그중 60여 명은 요코하마 항까지 기차로 동행하며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꼭 석 달 뒤인 1936년 6월 24일, 커닝햄은 미국에서 암으로 생을 마감하였다(“HOMEWARD BOUND,” *Tokyo Christian*, 1936년 8월호 4쪽; “Cunninghams Farewelled On April 24,” *Tokyo Christian*, 1936년 6월호 1쪽).

[커닝햄의 SOS를 받고 호주에서 3월 3일 입국하여 19일부터 모든 조선기독교회 선교지들을 순방한 다음 채이스와 쉐리가 미국에서 전개한 오해들을 해명하고 선교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커닝햄 부부를 위해 토마스 G. 히치가 쓴 글: “선교사 부부 송별회 4월 24일”]

만약 우리의 모든 후원자(친구)분이 먼저는 도쿄역에서, 그다음에는 요코하마 부두에서 커닝햄 부부에게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모여든 그 수많은 인파를 직접 보셨다면, 그분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던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을 결코 믿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확신합니다. (사정상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한 분을 제외한) 도쿄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들을 송별하기 위해 찾아왔으며, 배 위에서 약 여섯 달 동안 보지 못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전까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배가 있는 곳까지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기 위해 20마일(약 32km, 도쿄역에서 요코하마항까지)의 거리를 이동해 온 이들이 60명이 넘었으며, 도쿄역에서도 40명이 넘는 이들이 그들을 송별했습니다. 이곳 사역을 더 많이 지켜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만약 커닝햄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종이자 청지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35년간의 수고에 이토록 큰 복을 내려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곳의 모든 이는 여섯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이 건강히 돌아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짧은 안식년(휴가) 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그들이 없는 동안 이 사역을 이어 나갈 이들에게도 은혜와 지혜가 더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 G. H. (“Cunninghams Farewelled On April 24,” *Tokyo Christian*, 1936년 6월호 1쪽).

[커닝햄이 사망전 1936년 5월호에 실은 '한국 소식']

서울 제2교회는 최근 모임을 가질 예배당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선교부에 아무런 재정적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물포 제1교회는 3년 전에 지은 예배당이



송헌기독교교회의 부속건물 건축

비좁을 정도로 성장하여, 현재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회의 모든 성도는 매일 최소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호켄(방현) 교회는 새 목사관을 매입하고 부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일부 타 교파 친구들이 3년 전 인천(진센) 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도왔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다시 건축 중이지만 타 교파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회(Church of Christ)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교파주의가 쇠퇴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천 교회의 성도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매일 아침 평균 30명이 모여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기도합니다. 불과 하루 전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켄(방현)에서 이인범 전도자와 두 명의 선교사(커닝햄과 히치)를 환영하기 위해 300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 모두가 설교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히치(Hitch)는 두 명의 통역사를 거쳐 설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영어를 일본어로 통역했고, 다른 사람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서울에서는 10명에서 1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자 1월 1일부터 매일 아침 4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하나를 만들 가격이면 그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인범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요츠야 선교부의 조선포교관리자로 선교 사역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승인받았습니다. 우리의 몇몇 친구들은 우리가 한국에 법적 대표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회들과 성서신학원에서 특별한 찬양을 들었는데, 이는 세계 어느 곳의 교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김영배는 요츠야 선교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월 100엔을 받던 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천(진센) 교회는 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인천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호켄(방현) 교회는 최근 열정적인 성경공부(부흥회) 주간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전 5시 30분과 11시, 그리고 오후 2시와 8시. 저녁 시간의 평균 참석 인원은 150명이었습니다. 북한의 다른 세 교회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일 년에 두 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경공부는 교파주의라는 질병에 처방된 약과 같습니다. 인천의 성서신학원 학생들은 새 건물 건축 비용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수많은 면 수건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에 드려지는 헌금의 대부분은 작은 쌀 주머니들인데, 이것들을 큰 상자에 모아 격주로 판매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십일조 방식입니다. 한국에서(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지교회들과 성서신학원을 세우는 목적 중 하나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청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교회 중 일부는 번창하고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진정한 선교적 열정에 사로잡힌 한국의 우리 사역자들은 만주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곳으로 우리 성도들 중 상당수가 이주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비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시도해 보고 실패하는 것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Formosa)의 식인종(헤드헌터)들 사이에서 사역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국으로 눈을 돌렸고(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결과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동맹 모든 회원께서는 이 만주 선교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W. D. C. (출처: “Korean Notes,” *Tokyo Christian*, 1936년 5월호 2쪽).

3. 이인범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1933.9-1936.6)

요츠야 선교부의 한국선교는 19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32년 6월 10일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커닝햄은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이 허가하였으니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커닝햄은 일본에 상주하는 선교사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츠야 선교부가 파견한 한국인 사역자들 가운데 아무도 만 8년간이나 포교허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필운동교회)
학문수학, 경성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횡빈(요코하마)조선인기독교회 시무
요츠야 선교부 조선포교관리자(1931.9-)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1932.6.11-
1936.1.10) [사진 AI 수정]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일본 횡빈(요코하마)에서 돌아와 포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란 교파명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1933년에 인천의 1개 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를 신고하였다. 이것은 성낙소 목사가 귀국하기 전까지 요츠야 선교부의 한국선교의 8년의 결실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또 커닝햄이 보고한 한국선교내용들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을 뜻한다. 신고된 내용만가지고 볼 때는 1924년부터 1935년까지 요츠야 선교부의 한국 기독교회들에는 총 3개의 교회만이 존재하였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

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기되었다. 참고로 이 무렵 전주공교 327

개, 조선야소교장교회 2583개, 기독교조선감리회 814개, 성공회 87개, 로국정교회 6개, 일본기독교교회 12개, 일본메소제스트교회 7개, 제7일안식일야소재림교 129개, 동양선교회 149개, 구세군 74개, 조선기독교교회 27개, 동양선교회호리네스교회 7개, 조선회중기독교교회 26개, 기독교동신회 2개였다.

이인범 목사는 1933년 9월에 동경 심천(후카가와)조선인기독교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하여 성낙소를 대신하여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나 그의 활동은 모두 불법적인 것이었다. 커닝햄은 물론 이인범 역시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1935년 5월에 J. 마이클 쉐리의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으며, 그것도 커닝햄과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했다. 성낙소가 사직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 커닝햄은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과 일본 정부 수상(1932-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36년 1월 10일 총독부가 성낙소를 소환하여 사직서를 쓰게 하였고,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될 수 있었다. 당시 신신군은 광주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며, 이인범과 신신군 사이에는 이미 일정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인범은 비로소 1936년 1월 10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와 관리사무소소재지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에서 경기도 인천부 송현동 50번지로 바꾸는 포교관리사무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 소화 11년 3월 18일).

이후 이인범은 7년 8개월간(지지자였던 커닝햄 사후 7년 3개월간) 합법적인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平山武雄,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 소화 18년 10월 26일), 13일이 지난 30일에는 평산 무웅(신신군)에 의해서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으며(「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을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웅(松山義雄)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호 2면, 소화 18년 11월 8일).

이인범은 여러 자료를 종합해볼 때, 1943년 9월 17일까지 포교관리자로 헌신하며 신사참배와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심한 고초를 겪었고, 결국 1943년 9월 30일 포교폐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1926년 그를 면직했던 동양선교회조차 1943년 12월 31일 포교폐지를 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던

그는 장로교회로 이적하였다. 이후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수난을 겪었고, 이듬해인 1951년 55세의 나이로 금산에서 별세하였다.

4.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1936.7-1943.9)

이인범은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후 동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 소화 11년 8월 21일). 이어서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와 신신근(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와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4면, 소화 11년 10월 16일). 또한 이인범은 같은 날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정 106번지)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 소화 12년 1월 26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도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 소화 12년 3월 9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같은 날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57번지를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4,6면, 소화 12년 1월 26일). 이 아현정 473번지의 교회가 서울제1교회(경성교회)의 역할을 맡았고, 따라서 이곳에 1938년 서울성서훈련원을 개교시켰다가 가까운 곳의 건물 2층을 세내어 이전하였다.



김영배 전도자(1936년)
인천 유동 기독교회 개척
와세다대, 상해 성 요한대(M.A.) 졸업
기독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 다른 동료
들이 받던 급여의 4배가 넘는 월100엔을
받던 교직을 내려 놓았다.
[출처: Tokyo Christian]

1936년 12월 23일 구포교소 명칭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송현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 구포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송현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9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 소화 12년 7월 8일). 그리고 5일 후인 1936년 12월 2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

회의 구포교담임자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를 신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6면, 소화 12년 2월 9일). 이로써 이인범 목사는 1936년 말까지 성낙소 목사의 모든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았고, 성낙소의 흔적지우기를 완료하였다.

1933년 9월에 포교관리자로 부임한 이인범이 1936년 말까지 만 3년간 성낙소 목사가 신고한 3개 교회에 추가시킨 교회는 유정기독교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 단 한 곳뿐이었다. 따라서 커닝햄이 1936년 6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924년 3월 말에 한국 땅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운지 만 12년 동안 내국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인천에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12개의 교회와 12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도쿄 크리스천」의 보고와는 8개 교회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실제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늦장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도쿄 크리스천> 1938년 3월호가 한국에 신고 된 교회를 11개라고 보고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7개 교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었다는 뜻이다. 커닝햄이 보고한 12개의 교회들 가운데, 정주군의 근담동과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의 교회들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서울의 2개 교회들 가운데 한 곳(아현정기독교교회)만 남았고, 이난기 목사에 의해서 서울 제2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Tokyo Christian*, 1936년 5월호) 1936년 말까지 서울에는 2개 교회만 있었다.

요츠야 선교부의 서울 제1교회인 아현정기독교교회는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경성교회로서 계동에서 시작되어 송4동, 수창동, 적선동으로 옮겨 다녔고, 아현정 473번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리를 잡았다. 평북에서는 근담동과 대류리에 세워진 포교소들의 소식이 끊어진 대신에 구성군에서 평지동기독교교회와 정주군에서 약수포기독교교회와 문인동기독교교회가 추가로 개척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평지동기독교교회와 약수포기독교교회가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었는지는 확인된바가 없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오봉기독교교회(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포교소설치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장신주(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지)와 김성산(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10면, 소화 12년 6월 2일). 이틀 후인 5월 12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상익(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과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용포동기독교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와 문인동기독교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 소화 12년 6월 18일).

이인범은 1937년 6월 21일 정삼선(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7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이틀 뒤인 23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금곡정교회(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의 포

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 소화 12년 8월 18일). 그리고 동년 10월 31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 및 포교소명칭 유정기독교회를 화정기독교회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5면, 소화 12년 12월 16일).

이인범은 1937년 11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69호 4면, 소화 12년 4월 10일), 동년동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난기(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5면, 소화 12년 2월 9일).

이인범은 1938년 8월 22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 25일 염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번지)와 마장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 또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 염리기독교회에 이난기, 마장기독교회에 김상익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 소화 13년 12월 8일).

이인범은 1939년 1월 31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기독교회(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 포교소설치계 및 김태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3면, 소화 14년 3월 16일).

이인범은 1940년 3월 9일 송기준(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1호 6면, 소화 15년 8월 27일). 또 동년 3월 11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 포교소설치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에 임준식(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5의 1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5-6면, 소화 15년 3월 30일). 또 이날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임준식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67호 6면, 소화 15년 4월 13일). 수일 후인 3월 15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054호 3면, 소화 15년 7월 26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에 송기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58호 15면, 소화 15년 7월 31일). 그리고 1940년 8월 19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흥정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대흥정 36의 19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7호 3면, 소화 15년 9월 3일).

이인범은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요츠야 선교부로부터 지원이 완전히 끊긴 1942년 2월 1일에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현천기독교회(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 23번지)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520호 2면,

소화 17년 2월 23일).

그리고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 소화 18년 10월 26일). 그리고 신포교관리자인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3년 9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이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웅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호 2면, 소화 18년 11월 8일).

이인범 목사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4년 9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지옥(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9번지)의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3면, 소화 19년 12월 6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53번지) 구포교담임자 이난기를 신포교담임자 유지옥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조선총독부관보』 제5353호 2면, 소화 19년 12월 7일) 및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정교회에 유지옥(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5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55호 2면, 소화 19년 12월 9일).

이인범 목사는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한 1920년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나, 6년 뒤인 1926년에 면직되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요츠야 선교부를 통해 1927년 8~9월경 삼하도(미카와시마) 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어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동경 심천(후카가와) 조선인기독교회 제1대 담임목사로 섬겼다. 그는 요츠야 선교부 대표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의 깊은 신임을 받아 1933년 9월 조선포교관리자로 파송되었고, 1943년 9월 17일까지 만 10년간 헌신하였다. 그러나 일제 말기 신사참배와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에 반대하면서 큰 고초를 겪었고, 결국 포교 폐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포교폐지계는 1943년 9월 30일자로 제출되었다. 포교 폐지 이후 더 이상 오갈 곳이 없게 된 그의 마지막 행적은 금산제일장로교회 연혁에서 확인된다. 1926년 그를 면직했던 동양선교회조차 1943년 12월 31일 포교폐지를 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을 것이다. 이인범은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수난을 겪게 되었고, 이듬해인 1951년 55세의 나이로 금산에서 별세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조선총독부관보』;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오수강,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역사』(이명직, 1929);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

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끝림, 2023).